

## KAI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 KT-1 성능입증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싱가포르 창이(Changi) 국제공항에서 개최된 싱가포르 에어쇼(Asian Aerospace 2002)에 참가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대표: 길형보, KAI)는 건국 이래 최초의 해외 시범비행을 실시한 KT-1 기본훈련기 실물기 2대를 비롯하여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인 T-50 고등훈련기와 KT-1의 무장형인 XKO-1 저속통제기, 육군의 항공전력 증강을 위한 KMH 다목적 헬기 등의 모형과 항공기 지상훈련장비인 시뮬레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전시했으며 초음속 항공기 사업설명회 및 이스라엘, 베네주엘라, 방글라데시 등 중동 및 중남미, 동남아 국가의 군수책임자를 대상으로 방산물자 수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특히 국내 최초의 독자개발 항공기인 KT-1 기본훈련기가 세계 무대에서 시범비행과 시승비행을 실시해 비행성능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세계 각국의 시승 요청이 잇따르고 관심과 문의

가 계속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에어쇼 기간중인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현지에서 KT-1 기본훈련기를 조종해본 싱가포르 공군의 시험비행 조종사 치온(Mr. Philip Chionh) 소령은 1시간에 걸친 시승 후 “비행조종이 용이하며, 이착륙 거리가 매우 짧고, 비행기가 뒤집힌 상태에서 조종간을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회복되는 기능이 특히 놀라웠다”며, KT-1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승은 작년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에어쇼에서 KT-1 기본훈련기의 시범비행을 참관한 싱가포르 조달본부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싱가포르 공군은 노후한 자국의 S211(이탈리아 아에르미키사) 기본훈련기 26대에 대한 교체를 검토하고 있어 올해말로 예정된 국제입찰에서의 수출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KT-1 기본훈련기는 이외에도 이미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시승단으로부터 동급기종중 가장 뛰어난 항공기(Very Good Flight)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올 상반기중에는 필리핀과 콜롬비아 공군의 시

승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KT-1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항공기 수출국 시대를 개막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 기간중의 시범비행과 시승비행을 통해 항공기 독자개발 능력을 갖춘 항공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동남아, 중남미 등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항공기 수출상단에 전략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아(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메시어 다우티사로부터 A340-600 랜딩기어 12.5억달러 수주

국내 유일의 중대규격 화력장비 및 항공기 착륙장치 전문업체인 위아(주)는 지난 싱가포르 에어쇼 기간중에 프랑스의 메시어 다우티(Messier Dowty)사로부터 A340-600 랜딩기어 88대분 12.5억달러어치의 수출물량을 수주했다. 위아는 '02년부터 '06년까지 5년동안 매년 14대, 16대, 18대, 20대, 20대순으로 총 88대를 납품하게 된다.

지난해 A340-300 랜딩기어 60대분을 수주해 이미 34대를 수출완료한 바 있는 위아는 이번 수출계약으로 민항기 착륙장치 수출이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위아는 에어쇼 기간중에 A320 랜딩기어 Side Stay 약 600대분(44.8억달러어치) 수주를 위한 메시어 다우티사와 단가 협의를 실시했고, 단가 합의시에는 A340-600 Drag Stat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초대형 민항기인 A380의 랜딩기어 개발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위아는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다목적헬기 사업과 관련해 해외업체와 협력방안도 협의했다.

국내 최초의 독자개발 항공기인 KT-1 기본훈련기의 시승비행을 마치고 만족감을 표시한 싱가포르 공군의 시험비행 조종사 치온(Mr. Philip Chionh) 소령(가운데)과 동승한 우리 공군의 시험비행 조종사 장창렬 소령(左),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길형보 사장(右)





T-50 고등훈련기 이스라엘 수출추진 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이스라엘 방위산업체 대표. 오른쪽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안택순 부사장, 록히드 마틴사의 스티븐슨 부사장, IAI사의 에크하우스 부사장

### KAI와 록히드 마틴, 이스라엘 IAI와 T-50 고등훈련기 수출추진 MOU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지난 3월 1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 이스라엘의 IAI와 T-50 고등훈련기 이스라엘 수출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르면 T-50 고등훈련기의 공동개발 주체인 한국과 미국 양측은 이스라엘의 국영 항공기 생산업체인 IAI(Israel Aircraft Industries, Ltd.)와 이스라엘 공군의 항공기 교체 기종선정시 T-50 고등훈련기에 대한 우선적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3자간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의 항공관련 최대 방위산업체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마케팅 측면의 효과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 T-50 고등훈련기의 성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향후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상당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제주도, 지역항공사 설립 전망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항공사 설립이 올해말 실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역항공사 설립타당성에 대

한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도민에게 설명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 8월 항공사 설립에 따른 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올해말 창립총회를 열어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항공사는 50인승 이하로 규정된 부정기항공사업으로 출범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50인승 이하 항공기 5대를 도입해 제주-서 울과 제주-광주 등의 노선에 투입하고 3년 뒤 다시 5대를 들여와 제주-부산 등의 노선에 취항시킬 계획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항공사 설립 1차년도에 1백14억원의 총비용이 필요하고 항공사 설립 4차년도까지 1백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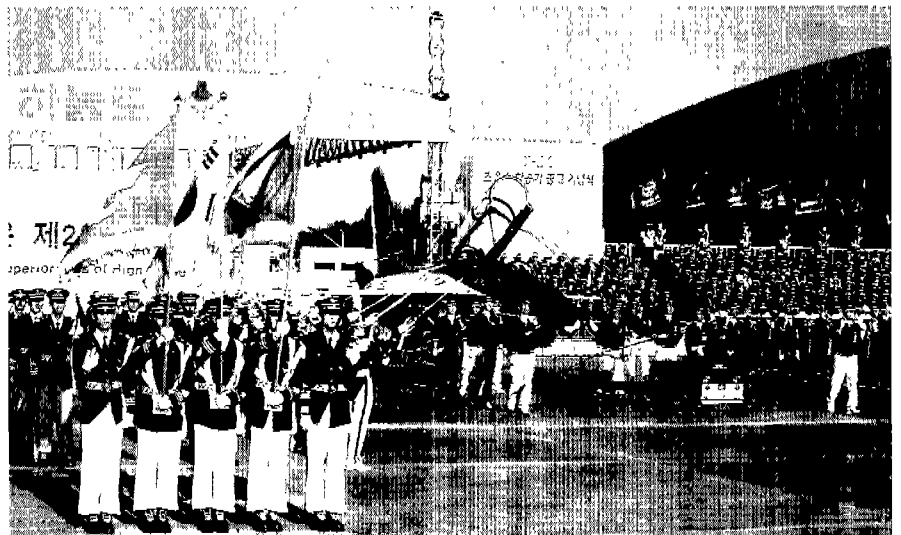
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뒤 5차년도에 26억원의 수익을 내면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를 기점으로 한 지역항공사 설립은 제주도가 최대주주가 되는 제3섹터형 주식회사로 설립될 전망이다.

###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고등훈련기 출고

항공기의 수요처인 공군이 사업을 관리하고 국내 항공업계가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공군관리, 업체주도)으로 연구개발중인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고등훈련기 의 출고기념식이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국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31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천1공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행사, 식후 행사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식전행사에서



# NEWS

는 공군 군악연주 및 의장대 시범, 두드락 북 공연에 이어 록히드 마틴사, 보잉사, 다쏘 에비에이션사 등의 해외 주요인사들이 보내는 축하 메시지가 영상으로 소개되었다. 기념행사는 KAI 길형보 사장의 사업경과보고, 이억수 공군참모총장의 식사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 출고식순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T-50 항공기는 21세기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의 선점이라는 야심찬 계획아래 개발된 것"이라며 "T-50 단일기종만으로도 2010년까지 1백억달러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며 연인원 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외국산 훈련기의 도입에 드는 20억달러 이상의 외화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데 KAI가 전진기지가 될 것을 바라며 "정부는 2005년까지는 독자적인 인공위성 발사체와 발사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차세대 국산전투기와 통신위성의 국산화 개발 사업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사를 마친 김 대통령은 단상에서 태극마크에 안착한 T-50으로 이동해 T-50 초음속 항공기 명칭, Golden Eagle(검독수리) 제막식을 갖고 T-50 개발, 생산공장 순시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출하된 T-50 고등훈련기는 현재 진동시험, 구조시험, 엔진테스트 등 신기종 항공기가 겪어야 할 모든 지상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올 6월 최초의 시험비행 과정을 거쳐 2003년 대량생산을 시작하고 2005년부터는 한국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 KAL, 제38회 무역의 날 2억불탑 항공업계 최초로 수상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2001년 11월 30일 38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수출실적 2억 1천1백만달러로 작년 대비 33%의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첨단기술이 필요한 비행기 부품의 수출비중이 높아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가능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공우주사업본부는 국내 최초로 '항공기 부품 수출 1억달러 시대'를 열어 이번 수상의 의미를 한층 배가시켰다.

대한항공은 지난 '76년 항공우주사업본부를 만든 후 꾸준히 비행기 부품의 국산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86년 747 항공기 날개부품 수출을 시작으로 꾸준한 시장확대와 다변화를 통해 지금은 보잉사 747, 777, 737, 717 및 에어버스의 330, 340과 엠브레이어의 ERJ 170 등 항공기의 주요 구조물을 설계, 개발, 생산하여 수출함으로써 국내 항공기제조업 수출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대한항공은 최근 정부 방산사업 수출물량의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해외 수출사업 강화에 더욱 주력하고, 엠브레이어사 70~90인승 여객기인 ERJ 170/190 부품수출을 시작함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주한 미군의 F-15 전투기 창정비와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 항공업체를 겨냥한 기내식 수출물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국방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 보안감사에서 2001년 최우수 보안감사업체로 선정되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 군부대 및 국내 78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가 대

상업체중 뛰어난 성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10여개월 기간 동안 국내 전 방위산업체와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통신 및 전산보안 실태, 방산 핵심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현황, 비밀문서 관리실태, 실무자 보안의식 수준평가 등 강도 높은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했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방산보안 업무수행 능력면에서도 국내 최고의 업체로 평가받게 되었으며, 정부 방산물량 수주시에 플러스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방산보안감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최우수업체에 선정되면 익년도에 정기 보안감사를 면제받고, 국내 방산업체 및 국방부 산하 부대에 통보하여 신규 방산물량 수주시 보안부문 평가 만점의 혜택을 받게 된다.

## 2002 청주 항공엑스포 개최기로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청주국제공항과 공군사관학교 등에서 '2002 청주 항공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4일 밝혔다.

청주시는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를 열어 행사 기본방향과 주제 등을 논의했으며, 오는 7월말까지 세부행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20억원의 행사비를 들여 항공역사관과 국제항공관을 운영하고, 항공기 전시회, 항공영화제, 연날리기대회, 항공사진 촬영대회, 미니 에어쇼 등을 열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품질경영 ISO 9001 인증받아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은 항공우주

부문의 연구소 단일 단위로는 국내 최초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인증기관인 영국의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ISO 9001:2000은 기존 1994년판의 ISO 9001을 혁신적으로 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으로서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이 2000년판으로 인증을 받은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품질경영시스템이란 산업생산품에 적용하던 품질평가 기준을 연구개발, 서비스, 경영기법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번 항공기술연구원의 품질경영인증은 항공분야의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기술의 전문화,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고객지향적 업무추진 등이 ISO의 기준을 만족시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항공우주비행체 및 관련기기의 설계개발 업무인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운항/훈련/정비지원 관련 시스템 설계개발 및 제작업무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프로세스, 사업유치, 교육훈련, 경영검토, 고객만족도 조사, 내부감사 등의 지원 및 개선프로세스 등으로 특히 설계개발 부문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이번 ISO 9001:2000 인증획득은 해외의 권위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설계개발시스템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대한항공의 설계개발 품질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향후 해외 유수의 항공우주업체가 발주하는 설계개발 사업에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KAI, 보잉 왕-리브 500호기 납품성공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지난해 11월 6일 보잉 747 점보여객기의 왕-리브(주날개

폴격, Wing Rib) 500호기를 미 보잉(Boeing)사에 수출했다. 이번 500호기 납품성공은 지난 1988년 10월 이 회사가 B747 기종의 왕-리브를 독점 수출하기 시작한지 13년만에 이룬 성과로, 단일 품목을 1개 제작사에 납품하는 사업만으로 총 2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을 이끌어낸 것이다.

더욱이 KAI는 보잉측과 2007년까지 동일 품목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이번 500호기 출하 이후의 수주잔량도 1억달러에 달해 총계약금액은 3억달러에 이른다. KAI는 1987년 보잉사와 1차 300대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B747 주날개 폴격의 유일한 제작, 공급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후 제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 기술개발과 관리능력을 인정받아 1992년에 200대분에 대한 추가계약을 체결했으며, 2000년 12월에는 2007년까지의 추가물량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88년 이후 생산된 약 500대의 B747 기종에는 모두 KAI의 제품이 장착되어 있다.

보잉 747 기종에는 한 대당 178개의 왕-리브가 장착되며 폭 1.7미터, 길이 3.5미터에 이르는 이 제품들은 약 10만개의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부품들은 3차원 기계성형, CATIA를 이용한 5축 기계가공, 다양한 표면처리 및 정밀조립과



보잉사의 엔지니어링 부문 헨크 켈 부사장(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창원공정장 이광진 전무(좌)에게 보잉 747 점보여객기의 왕-리브 500호기의 성공적 생산, 납품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정 등을 거쳐 생산되고 있으며, 보잉사뿐만 아니라 미 연방항공청(FAA)의 엄격한 품질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제작되고 있다. 실제로 KAI는 국내 최초로 보잉 협력업체 품질시스템(BQMS)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KAI는 자체구매에서부터 치공구 제작, 가공 및 조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 개발한 기술로 수행하고 있어, 보잉사의 협력업체 개발 역사상 유례가 드문 경우로 평가되고 있다.

### 고흥 외나로도 '우주센터' 올해 착공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우주센터 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센터사업단 고흥사무소는 "우주센터 부지로 지정돼 4년간 1천5백억원이 투입될 봉래면 예내리 외나로도 일원 우주센터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2월까지 4백54억 7천만원을 들여 편입예정부지 627필지(4백95만여 m<sup>2</sup>)를 사들이고, 4월부터 진입도로 개설, 부지정리 등 기반토목공사를 시행키로 했다. 이어 10월부터는 위성발사대의 부속 시설인 발사통제, 비행통신, 비행안전, 조립시험, 지원시설 등 건축공사에 착수한다. 외나로도에는 지난해 1월 우주센터 건립 부지로 확정돼 오는 2005년 공사가 마무리된다. ☉